

사설

귀순동포에게 '자비의 품' 열자

북한의 학정을 피해 귀순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되고 압제가 강해질수록 생존을 위해 이땅으로 남으려는 가여운 생명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들을 도덕적 지원과 큰 힘이 필요하다. 각박한 그들의 고통과 비애를 어떤 것일지 모르겠고 사실은 무아와 무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부처님의 음성 전할 통로가 열릴 것이다. (남순지장회)에서 이 일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장회라는 이름이 너무나 적절하고 아연하다.

누구에게나 삶은 고통스럽다. 이 원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교의 문자를 남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삶 전체가 온통 고통의 바다라는 진실이 누가 쉽사리 동의할 것인가. 선정이 깊어지고 지혜의 눈이 닦여야 그 진리가 점차 밝아올 것이다. '삶이 고통이니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라는 의문이 마음에 천근 무거운 돌이 되어 이 생각, 밥을 먹어도 이 생각이 사무쳐야 빙장을 돌파할 길이 열린다.

혼자 해결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남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이중의 덕목을 안는다. 고통과 번뇌로부터 나를 건지는 등불이 지혜일 것이고 남을 건네주는 등불이 자비일 것이다. 지혜없는 자비는 맹목의 우둔이기 쉽고, 자비없는 지혜는 매미론 독살이기 쉽다. 이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될 수 없다.

불교전통은 자연스럽게 '지혜'를 우선시 해 왔다. 그래서인지 수행자를 사색하고 거만하게 만드는 병폐가 있다. 세계를 인간의 관심을 탐색시켜 보는 실용적유부(說一切有部)나, 오온(五蘊) 또한 법집(法蘊)이라 타파하고자 공을 역설한 중관(中觀)에 심하게 동요되어서 그런지 중생을 조립장난감의 비인격으로 보려는 못난 불자들이 있다. 약이 독하면 병이 되는 법이다. 일상의 애욕과 번뇌부터의 초연을 과시하고자 하는 빛나간

권위의식인가. 존경과 외경심으로 고개를 조아리는 신도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나쳐 화택번뇌에 휩싸인 하잘것없고 불쌍한 무리로 내려다보는 이만을 쉽게 목도한다.

지혜가 곧 자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 스님도 지(智)와 함께 비(悲)를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권면해 마지 않았다. '자리와 이타로 비지를 증장시켜 위대한 보리를 구하라! (自利利他 增長悲愍 求大菩提 - 결사문) 애욕과 공포(相)를 떠나다면 그 자리에 무량의 자비가 들어 서야 한다. 지장보살은 "무간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지 않으면 지옥을 나서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한다. 그 눈물겨운 서원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에 압도되는 탓이다.

불교는 이 위대한 서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땀땀하고 고압적인 자세로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없다. 지혜를 통해 나를 비울 때 상대방의 고통과 번뇌는 빈 거울에 비치는 영상처럼, 너의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것이 된다. 아픔이 일체된 교감에서 서로를 막고 있던 의식과 정서의 벽이 사라진다. 고매한 진리, 팔만대장경의 교화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 위대한 공감과 동정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생의 고통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아픔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 고통 자체에 다가가지 않고 함께 너머의 열반의 세계를 설교하고 있어서는 불교의 진리가 먹혀들 리 없다.

현재 적지않은 수의 귀순자들이 대부분 타종교를 믿고 있다. 그들의 외로움 어려움을 함께 해준 결과인 것이다. 앞으로 귀순자들이 더욱 급속히 늘 것으로 보인다. 천수천안 가운데 적절한 눈과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부처님의 큰 가르침 근처로 이끌기를 합장 기원한다.

열린 마당 역대정권 종교정책

해방이후 편향된 종교정책은 현정권 뿐 아니라 현정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불교계는 정책적으로 무시되거나 정권의 예측과 탄압, 기독교편향정책, 군내의 불교탄압으로 교권이 침해 받아왔다.

정확에서 불교가 무시된 사례가운데 '85년 남북이산가족 상호교환 방문시 남한측 대표로 목사 신부가 포함된 반면 불교계가 제외된것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처음오신날은 불교계가 20여년동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75년에야 공휴일로 제정된바 있다.

대통령의 종교편향으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불교의 정권예속화'가 대표적이다. 54년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대통령명령은 비구 대처승을으로 비화되었고 사찰집수를 둘러싼 유흥투쟁과 범법자승은 결국 한국불교 1천6백년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으로 남

년에 일어난 10. 27비난도 정치적 실현을 위해 정권핵심부가 불교를 제물로 삼았던 사례이다.

위정자들의 종교편향기운에 기독교주의 정책은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있다. 특히 초, 중, 고,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외곡은 종교편향의 결정에 이른다. 초중고 음악교과서의 경우 크리스마스 캐롤, 영가, 찬송가가 곡 일색으로 기독교 교과서로 착각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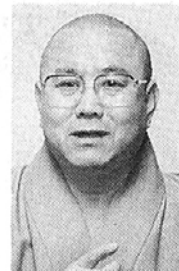
대통령의 종교예배과정에서 빛어준 종교편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대통령중심제 정권에서 정책으로 반영될수 있는 여지를 안고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동안 이땅에서 일어난 종교편향정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법타스님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기회균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평성을 잃은 종교정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번 김영삼대통령의 종교예배 참여를 계기로 더 이상 편향된 종교정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종교들의 뜻을 모아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31일 발족한 종교편향정책 시정을 위한 대책위원장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교편향정책이 절정에 다다른 듯 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책위원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종교예배를 규탄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편향적 교권침해 다반사

정권예속화...초파일 공휴일 20년 걸려 국정 교과서도 기독교적 사고로 편찬

당시 방문단은 북한에서 예배와 미사를 갖는 '북한에 기독교나 천주교가 없는 것은 비인간적 사회'라며 불교계의 이산가족을 외면하고 기독교를 선전했다.

'45년 미군정때부터 예수탄일인 12월25일이 경축일화하기 시작했으나 부

었다.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이대통령의 담화는 불교의 정화나 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통령의 종교편향이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79

정도다. 또한 도덕 국민윤리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에서 불교를 낡은 사상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사고정립에 혼란을 주어 '종교는 기독교'라고 연상할 정도다.

이밖에도 사찰앞에 교회건축 허가, 천년고찰 경내에 도로개설등 종교편향정책은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같은 종교편향정책에 대해 종교인들은 "종교 편향은 사회악으로 바른종교인의 행위가 아니다"며 "국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종교편향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업 기자



지난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북한방문 때 남한측 대표로 목사 신부가 포함됐으나 스님만 제외됐다. 시정은 그해 9월 북한을 방문한 남한 목사 집전으로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장면.

목어

최근 인기상승하고 있는 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다. 그 집에는 과년한 딸이 셋이나 있다. 맏딸은 결혼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둘째 딸은 아직 인연을 못 만나 애를 태우고 있다. 딸들의 혼기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는 어느날 막내로부터 "결혼하기로 했어요"라는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한다. 이때 저녁식사 중이던 둘째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친다. "그렇게 좋아요" 당황한 어머니는 나중에 "미안하다"며 둘째 딸의 등을 어루만진다.

김영삼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볼때 기독교인 장사병들의 사기는 어

드라마 속의 어머니

떠했을까. 그런 신자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기분도 호뭇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같은 영내의 또다른 쪽에서는 대조적으로 울적해 하는 장병들이

있었다. 법당출입이 통제되고 일직·당직을 바꿔서만은 아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국방부장관 사과로 불자들은 화를 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 무엇이 문제인가. 장로 안기부장과 국방장관

거른됐더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나의 종교가 중요한 만큼 남의 종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김대통령이 불자들의 편향은 정서를 읽어주길.

어느 기독교인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불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말겠지."

딸 셋을 둔 드라마 속의 어머니는 둘째 딸이 '화내다 말길' 기다리지 않고 자애를 보여줬다. 경전에서든 국왕(대통령)은 부모에 비유되고 있다.

새벽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선근을 심어라

영사성에 장자의 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문혜였다. 나이 겨우 여덟 살로 얼굴 모습은 단정하고 낮은 고우며 모든 모양이 각 각주어져 보는 사람등이 기뻐했으니, 일찍이 거기에 향영없는 제복등을 가까이 오시면서 공양하여 여러 선근을 심었었느니라.

정토사 주지 설산

현대만화

어디서 오든 한 가족이에요

생활 속의 불교 61

모든 이에게 주어진 행복 초대장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원하기에 노력을 한다. 불철주야로 애쓰는 사람도 많다.

누구에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기에 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چه 노력으로 척차다 싶으면 他力을 빌어서라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그러나 웬지 행복은 쉽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다. 아직은 때 이른 봄 소식처럼 먼발치에서 가물거리리는 경우가 더 많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원치도 않는 불행, 고통과 불행이 불쑥 덮쳐들기도 한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통탄해마지 않을 경우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꼭 잡았다고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 떠나가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 마드는 모습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즐겁고 늘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늘 풍족하고 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릴 길은 없는 것일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있다! 행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초대장은 쥐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원하면서도 서로를 죽이고 미워한다. 욕심과 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반사처럼 그것을 파괴한다. 욕심과 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치고 빼앗는 일을 자



행한다. 제 몫만을 챙기려는 삼독심 때문이다.

행복·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이 쉽게 잡힐 것 같지만 행복 대신에 불행이 밤 도둑처럼 소리 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불행해질 것 같지만 행복이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 안는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생각은 오직 관념의 허상일 뿐이다. 고로 나, 내것을 놓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행복은 놓아 버림에서, 불행은 집착에서 싹이 튼다는 말씀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자기 전에 먼저 주어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협찬 : 울산지원 법형제회